

標準化의 獨善主義



姜 洪 烈

(韓國標準研究所 소장)

標準化의 원리는 科學·技術이나 産業·商易分野에만 그치지않고 人文社會 全般에 걸쳐 널리 적용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文化經濟活動을 수행하는데 역사적으로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標準化는 어떤 課題를 풀어나가는 수단·절차·방법이지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문제해결에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標準化原理를 어떤 대상에(적용범위), 어떻게(標準設定), 얼마동안(有効期間) 적용시키는데 따라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標準化의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여기서 체계적인 접근법이란 주어진 상황 또는 과제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살살이 면밀검토한 다음 총괄적이고 일관성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食糧增産運動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는 농장에 대한 모든 入力(Input), 즉 토양, 종자, 비료, 살충제, 농업용수, 농기기등 요인들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분석해야 할 뿐아니라 모든 出力(Output), 즉 농작물의 시장성, 저장, 수송등은 물론, 나아가서 각종 식품의 영양가라든가 그 식품의 가공 또는 식량증산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소에 대한 평가와 처리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標準化의 裏面에는 획일적인 요소와 독선적 경향이 내재하고 있다. 이것이 좋은 면에서 작용될 때는 생산현장에서의 품질개선·원가절감이나 사회문제해결시의 합리성·효율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비용통·비능률적이라든가 관료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앞서 말한바와 같이 표준화의 원리를 적용할 때는 모든 요건을 빠짐없이 분석·검토한 다음 총괄적인 해결책을 찾는 체계적인 접근을 반드시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비교적 잘 정의되어 있는 공산품의 제조현장에서 보다 법령·제도라든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표준화의 원리를 적용할 때 더 그러하다. 이하 몇가지 예를 들어 좀더 고찰해 보기로 하자.

제 1차 유류과동 초기에 미국에서 논의되었던 자동차의 에어컨디셔너의 경우를 들어 보기로 한다. 처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는 무조건 에어컨디셔너는 안다는 것이 옳다고 속단을 하였는데 그후 면밀한 계산을 해본 결과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차창을 열어 놓으면 공기의 저항에서 오는 에너지소모가 에어컨디셔너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이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주로 고속도로를 시속 80km 이하 속도로 달리는 차종에 대하여는 에어컨디셔너를 다는 것이 에너지 절약형의 규격(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얼마전에 치룬 을지연습 '84에서 戰時人力動員計劃과 관련하여 느낀점을 두번째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동원예비군에 속하는 연구요원을 방위전선에 투입하고 이로 인한 연구인력 부족은 科學技術院의 碩·博士課程學生들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내 직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정신자세의 배양과 예산절약의 면에서는 평소에 동원예비군제도를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극히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경우 지켜야할 것이 고급두뇌와 연구시설이고 그 우선순위도 사람이 시설장비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비상사태하에서는 연구요원을 연구장비보호를 위하여 소비하고 필요한 연구업무수행에는 미숙한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고 있는것 같다. 제 2차세계 대전중 일본이 全國土를 폐허화 당하면서도 고급두뇌는 철저히 보호하여 오늘의 경제대국건설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古事는 비상사태하의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즉, 비상사태대응책의 표준화에서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표준화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획일성과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그 원리의 적용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 중에는 인류문화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의성을 가장 심하게 꺾는 것은 획일주의와 독선주의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법령·규칙이건 제도·절차이건 혹은 測定標準의 보급이건 결국은 문제해결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간이 만든 것인 이상 인간이 그들 標準化事業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원칙의 적용이 가장 명백·단순한 測定標準의 경우에도 較正週期(標準 有効期間)라든가 높은 수준의 정밀정확도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單位定義의 설정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요구될 때가 많다. 하물며 人文社會問題에서는 속단적인 표준화는 옳지 못할 자승자박을 초래할 경우가 많다.

끝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또 한가지 남아 있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실지로 적용시키고 준수할 인간의 양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의 수행보다 자기열성의 파시에 무게를 더 두는 자가 법이나 제도를 무기로 휘두르며 야기시키는 혼돈과 공포 분위기는 생산성을 줄먹는 인간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중공의 경우 모택동치하의 紅衛軍運動이 그 한 예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잉충성이라 하여 가끔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너나 할것 없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는 깊이 생각하고 되풀이하여 양심에 묻는 생활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